

한라시론



김 양 훈
프리랜서 작가

누가 뭐래도 이제 가을이다. 이맘때 좁 들국화 가득 뽕 산간 들길의 풍경은 상상만 해도 가슴을 아련하게 한다. 뒤이어 안도현의 4행시 「무식한 놈」이 떠오른다. “썩부쟁이와 구절초를 / 구별하지 못하는 너하고 / 이 들길 여태 걸어왔더니 / 나여, 나는 지금부터 너하고 절교다!”

썩부쟁이와 구절초를 또렷이 구별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 사람들은 썩부쟁이, 구절초, 별개미취, 산국, 갯국화 등을 한데 묶어 흔히 ‘들국화’라 부른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국화표준식물목록에 ‘들국화’라는 식

들국화는 없다

물명은 없다. 시의 마지막 구절은 해학이겠지. 들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고 절교를 선언하다니, 처벌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렇다면 시인이 정색하고 ‘너’를 타박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시는 알레고리적 작품이다. 꽃 이름을 모르는 무식함을 삶의 태도와 엮어내는 우화적 구조로 확장했기 때문이다. 시의 진짜 주제는 식물학적 무식함이 아니라 ‘바라봄(觀)’이다. 무엇을 알고 모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나 진지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식한 놈’은 안목(眼目)이 모자란 사람을 가리킨다.

이 시의 풍유(諷諭)를 최근의 유튜브 저널리즘에 빗대어 보자.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2026)’에 따르면, 한국 응답

자의 49%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통해 뉴스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이는 조사 대상 48개국 평균인 31%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뉴스 크리에이터는 레거시 언론사 소속 기자가 아니더라도 디지털 플랫폼에서 시사와 뉴스 콘텐츠를 직접 제작·재가공·해설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는 이들을 말한다. 미디어 학계에서는 최근 이들을 뉴스 매체의 ‘새로운 주체’로 주목하고 있다.

이들의 출현은 기존언론의 독점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저널리즘의 기본인 전문성과 사실 확인의 부실이 늘도마 위에 오른다. 기존 매체에는 ‘문지기’, 즉 편집자와 팩트체커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하지만 신생 유튜브 시사 채널은 이러한 기본을 담보하지 못한다. 유튜브에 예

사람에게 마이크를 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모든 목소리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대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최근 장미란 씨 사건을 둘러싼 일부 유튜브의 보도는 이러한 위험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 ‘무능한 경찰’ 프레임이나 ‘검찰 수사권 문제’로 몰아가는 가 하면, 일부 팩트 채널은 중국인의 장기 매매와 범죄 카르텔 같은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퍼뜨리며 제주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부추긴다.

새로운 미디어 시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뉴스와 쓰레기를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이다. ‘정준희의 눈:’ 같은 전문 미디어 비평 채널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들국화는 없다. 뉴스도 마찬가지다. 화면 속 영상이 모두 진짜 뉴스는 아니다.

사설

난항 예상되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제주도가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3대 방침을 제시했다. 3대 방침은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가관 교차 검증 확대, 도의회 동의 전 도민 의견 수렴이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조만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 곧바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다만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환경문제뿐 아니라 여러 갈등이 혼재된 사안인 만큼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관련 사무를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로 이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초안 발표 전에는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대책 등 종합적인 쟁점을 다루고 초안 발표 후에는 환경영향갈

등조정협의회와 역할까지 맡아 환경 검증을 하게 된다. 도는 또 환경 검증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한국환경연구원과 제주 녹색환경지원센터 2곳이던 전문가 검토를 4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를 구하기 전 도민 의견 수렴을 마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하게 된다.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이 제시됐다. 하지만 갈등 해결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제2공항 찬성단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협의회 구성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다. 현재로서는 협의회 출범 자체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갈등의 한 축이 협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솔로몬의 지혜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열린마당

제주가 답하다



강 경 림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국 의 관심은 제주를 향하고 있다. 가장 먼저 자치경찰을 운영했고, 지금도 유일하게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이 함께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축적한 경험은 앞으로 전국 자치경찰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자산이 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중심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주민참여 방법활동, AI 기반

치안드론 운영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 맞춤형 치안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을 지휘·감독하며 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 왔다. 현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만족도 조사를 통해 제도도 보완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단순히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치안체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앞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 인지도를 높이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데이터 기반 치안과 AI 기술 활용,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도 과제다. 제주는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며 성공과 시행착오를 모두 경험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뉴스-in

제주, 아프리카 지질공원과 자매결연

모로코 르군과 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태평양 세계지질공원 총회’에서 아프리카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모로코 르군(M’Goun) 세계지질공원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와 모로코 르군 세계지질공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화산과 퇴적 지형에 대한 공동 학술연구와 보전 자료 공유, 지질 탐방로와 지역 상생 지질 상표 육성 정책 교류, 국제 행사와 홍보 상호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앞으로 지질유산 보전 기술과 생태·지질관광 운영 경험을 활발히 공유해 실질적인 국제 교류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소범기자

추석 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서귀포시가 추석 연휴를 앞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면적 1000㎡ 이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14~16일 집중 안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상태, 추락·낙하·붕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가설시설물 설치·관리 상태, 연휴 기간 현장 출입통제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을 예방하고 하도급대금과 근로자 임금 등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건축 관계자도 현장 정리와 안전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고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금탁기자

제주 첫 전국장애인체전 관심과 응원

지난 8일 오후 제주시 원도심 탐라문화광장에서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가 채화됐다. 제주에서 처음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과 선수단 안전을 기원하는 희망의 불꽃으로 10~11일 성화 봉송 주자들이 도내 곳곳을 밝힌 뒤 1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개회식에서 최종 점화된다.

전국장애인체전은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의 가장 큰 축제다.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 동안 강창학경기장 등 제주 일원에서 펼쳐질 이번 대회에는 골볼, 휠체어탁구, 보치아, 쇼다운, 스피드 등 31개 경기 종목에 5600여 명의 선수 등 9000명 넘는 인원이 참가한다.

제주도는 체전을 앞두고 경기장 26곳을 개·보수하고 10곳의 장애인 편의 시설 개선에 나서는 등 대회 기간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

력을 발휘하도록 준비해 왔다. 제주에 도착한 선수단이 숙소나 경기장까지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수송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장애인체전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대회를 준비해 온 선수들의 열정과 용기를 마주할 수 있는 자리다. 경기 결과를 넘어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체전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경기장을 찾아 장애인 스포츠의 매력과 가치를 직접 느끼고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때 성공 체전이 완성될 수 있다. 더불어 장애인체전을 치르며 장애인·비장애인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스포츠 활동을 누릴 있는 환경을 갖춘 제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모쪼록 각 시도 선수단이 제주를 마음껏 즐기고 가길 바란다.

상속한정승인 공고

- 피상속인 : 망 송정훈(1973. 08. 06. 생)
- 최후주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성로 67, A동 801호 (용담일동, 덕진아울림아파트)

상기자는 2025년 9월 5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6년 9월 3일 제주지방법원 2026년단409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21길 16, (성도일동)

2026. 9. 10.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고순자

주 권 제 출 공 고

본 회사는 2026년 09월 07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현재의 자본의 총액 금10,000,000원 중 금9,999,900원을 감소시켜 자본의 총액을 금100원으로 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100원의 주식 100,000주에 대하여 현재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총수에서 균등비율로 감소하기로 하고, 무상으로 강제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를 1주로 하는 방법에 의하기로 하였으므로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의 게시일로부터 1월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10일

주식회사 은인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로 223, 용머리부동산
대표자 사내이사 김은숙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887, 010-5755-88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릉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모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모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도백이

칼라강판
조립식건물
녹슬고
비새는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 나 장 의 사
616-08-85402